

## 봉정사 창건 설화의 두 서사적 층위와 스토리텔링의 방향성\*

신호림\*\*

<차례>

1. 鳳停寺에 대한 설화적 기억
2. 鳳停寺 創建 설화의 존재 양상과 두 서사적 층위
3. 鳳停寺 創建 설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의 방향성
4. 나가며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에 위치한 봉정사(鳳停寺)에 얽힌 창건 설화에 주목했다. 봉정사는 2018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으며, 전통문화도시로서의 안동의 로컬리더를 구성하는 주요 문화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봉정사의 창건 설화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동안 봉정사의 건축과 미술의 역사성·예술성에만 관심을 기울여서, 정작 봉정사를 찾는 방문객들이 봉정사만의 정체성이나 의미를 온전하게 전달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건 설화는 봉정사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이며, 설화 향유자들이 봉정사에 대한 집단적 기억을 담아낸 그릇이기에 봉정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봉정사의 창건 설화는 크게 두 서사적 층위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의상대사(義湘大師)가 부석사(浮石寺)에서 종이학을 날리자 그 학이 봉황으로 변하여 지

\* 이 글은 2019년 7월 19일 봉정사 설법전에서 “봉정사의 가치와 기록”이라는 기획주제 하에 열린 학술대회에서 「봉정사 설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글을 논문 형식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이다. 학술대회에서 토론을 통해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안동대학교 김윤희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안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금의 봉정사 자리에 머물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능인대사(能仁大師)가 대망산의 굴에서 수련을 할 때, 하늘의 시험을 통과해서 천등(天燈)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중 후자는 천등산(天燈山)과 천등굴(天燈窟)의 지명유래담으로도 가능하다. 봉황은 화엄종의 시조로서 의상대사가 화엄종의 사찰을 건립하고 그 세력을 넓혀가는 상징이며, 천등은 화엄종에서 깨달음을 빛으로 표현하는 종교적 이치를 문학적으로 풀어낸 결과이다. 결국, 봉정사 창건 설화는 화엄종의 전파 과정과 깨달음이라는 종교적 교훈을 두 개의 층위로 담아낸 서사물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담화에서 스토리를 추출하고, 그 스토리에서 새로운 담화를 창출하는 과정을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때, 봉정사의 창건 설화에서 새로운 담화를 만들 수 있는 스토리텔링의 방향성은 봉황과 천등 화소에 시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봉황과 천등 중 후자에 방점을 두는 것이 좋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천등에 시작점을 두었을 때 천등산-천등굴-봉정사로 이어지는 빛의 공간과 이 깨달음의 빛을 품고 있는 봉황의 의미까지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봉정사뿐 아니라 천등굴까지 함께 아울러서 봉정사의 영역으로 인지했을 때 봉정사에 대한 새로운 담화는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 봉정사, 창건 설화, 스토리텔링, 봉황, 천등, 능인(能仁), 의상(義湘), 안동, 세계유산

## 1. 鳳停寺에 대한 설화적 기억

본고는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에 위치한 봉정사(鳳停寺)에 얽힌 창건 설화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의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봉정사는 2018년에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사(山寺)이다. 그동안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건축과 미술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고증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봉정사가 함의한 예술적·종교적 가치가 입증되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잠시

시선을 돌려 봉정사를 둘러싼 설화에 주목하는 이유는 설화가 가지고 있는 ‘서사적 특성’ 때문이다.

인간의 지식 형태를 거칠게 이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뭇토스(mythos)와 로고스(logos)로 대변된다. 서사는 뭇토스로서,<sup>1)</sup> 논변을 뜻하는 로고스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뭇토스는 그 자체로 믿어지거나 믿어지지 않을 뿐, 그것에 대한 토론이나 논박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학문적 인식이나 사고에서 구현되는 비판적 지식은 로고스로 나타나지만, 서사로 풀어내는 뭇토스적 지식은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sup>2)</sup> 뭇토스는 논박이 가능한 로고스와는 달리 강한 담론을 가지는 지식 형태인 셈이다.<sup>3)</sup>

따라서 봉정사의 설화는 단순한 유희적 산물에 그치지 않고 설화 향유층이 봉정사에 대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담아낸 서사물이라고 할 수 있다. 설화를 통해 봉정사에 대한 다양한 기억을 간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봉정사의 새로운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봉정사의 설화를 다룸에 있어서 그 대상을 봉정사 창건 설화에 국한해서 논의를 진행한다. 조사 과정에서 봉정사 성보관(聖寶館)에 위치해있던 디달방아와 관련된 전설,<sup>4)</sup> 고려 왕건(王建)과 관련된 봉정사의 설화 등도 확

1) 최남선은 이야기를 ‘이야기’ 또는 ‘이악이’로 지칭한바 있다. 그리고 ‘이야’에서 ‘악’은 ‘언어’의 고의(古意)를 가지며, ‘이’는 연결(連格) 또는 계승(繼承)을 의미하는 설명어로서 회랍어 “미토스”와 유사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남선, 『조선역사통속강화 개제』, 『六堂 崔南善全集』 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육당전집편찬위원회 편, 현암사, 1973, 421쪽.

2) 송효섭, 「구조, 그 모자람과 넘침: 프로프와 레비스트로스 설화학의 대립적 관점」, 『기호학연구』 24, 한국기호학회, 2008, 68쪽.

3) “뭇토스는 권력과 권위를 담언하는 담론으로, 우리가 믿거나 복종해야 할 그 무엇으로 제시되는 것이다.”라는 링컨의 언급을 참고해볼 수 있다. 브루스 링컨 지음, 김윤성·최화선·홍윤희 옮김, 『신화 이론화하기: 서사, 이데올로기, 학문』, 이학사, 2009, 45쪽.

4) 봉정사의 디달방아는 풍수지리상 뱀의 혈을 눌러준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다. 제보자: 길상화 씨(1940년생, 女) / 조사일시: 2019년 07월 03일 11:00~11:30 / 조사장소: 봉

인이 되었지만,<sup>5)</sup> 대부분 조사된 봉정사의 설화는 창건 설화이기 때문이다. 봉정사 경내에 있는 안내판에도 “신라 문무왕(文武王) 12년(672) 의상대사(義湘大師)가 부석사에서 날린 종이 봉이 이 곳에 내려 앉아 절을 창건”하였다는 간략한 이야기가 덧붙여 있을 만큼 창건 설화는 봉정사의 기원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적절한 유형의 설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봉정사 창건 설화를 살펴보면, 독특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봉정사 공식 홈페이지에 소개된 창건 설화를 요약해보겠다.<sup>6)</sup>

- ① 천등산은 옛적에 대망산이라 불렀다.
- ② 능인대사(能仁大師)가 대망산에 있는 굴에서 도를 닦고 있었다.
- ③ 아름다운 여인이 능인대사의 앞에 나타나 유혹했지만 실패했다.
- ④ 알고 보니 여인의 유혹은 옥황상제의 시험이었으며, 옥황상제는 능인대사에게 하늘의 등불을 내려주었다.
- ⑤ 능인대사는 득도하여 위대한 스님이 되었고, 하늘에서 등이 내려왔기 때문에 능인대사가 수행한 굴을 천등굴(天燈窟), 대망산을 천등산(天燈山)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봉정사 경내의 안내판에서는 의상대사가 종이 봉학을 날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 반면, 봉정사 홈페이지에서는 능인대사가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천등(天燈)을 받게 된 사연이 천등굴과 천등산의 지명유래담으로 제시되어 있다. 엄밀하게 보자면, 이 지명유래담을 곧 봉정사의 창건 설화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의상대사가 봉황을 띄워 보냈다는 설화

---

정사 / 조사자: 필자

5) 왕건이 봉정사에 기도를 올린 덕택으로 견훤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다는 이야기이다. 제보자: 봉정사 주지 도륜 스님 / 조사일시: 2019년 06월 25일 13:00~13:30 / 조사장소: 봉정사 / 조사자: 필자

6) 봉정사 홈페이지([http://bongjeongsa.org/bbs/content.php?co\\_id=1030](http://bongjeongsa.org/bbs/content.php?co_id=1030))

와 능인대사가 불도를 닦았다는 설화로 이분되어 있는 서사를 하나로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렇게 있는 가운데 의상 스님께서, 십대 제자로 스님(능인대사: 필자)이 들어가게 됐는데, 정진을 잘하시니깐. 의상 스님이 봉황을 종이학을 날려서 그 화업도량의 터를 갖다가 종이학을 날렸는데. 그 종이학이 봉황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상스님이 찾아와가지고 능인스님과 함께 보고 봉황이 머문 자리네. 이 터가 어... 능인이 이... 오래도록 갈 복된 터다 해가지고 봉황이 머문 자리니깐 봉새 봉 재[鳳]에 머물 정 재[停]에 봉정사라고 하면서 능인 스님을, 여기에 수행을 하고 있었으니 능인 스님이 이 절을 지어서 운영을 하라 이렇게 인자 하셨죠. 그래서 봉정사가 되었다 하는 게 있어요.<sup>7)</sup>

능인대사가 천등굴에서 천등을 내려 받고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마침 의상대사가 봉황을 날려서 절터를 잡았고 능인대사에게 절을 짓고 운영하라고 했다는 방식으로 두 서사가 결합되어 있는 각편이다. 서사적으로 내적 논리를 갖추었지만, 이 또한 설화 향유자의 개입으로 변모된 형태의 서사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봉정사 창건 설화와 관련한 다양한 조사 자료를 확인해보면, 봉정사를 창건한 주체가 의상대사와 능인대사로 혼용되어 나타나며, 천등굴과 천등산의 지명유래답과 의상대사가 봉황을 날려서 봉정사 터를 잡았다는 설화가 때로는 독립적으로 때로는 병렬적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따라서 봉정사 창건 설화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그동안 채록·정리되었던 자료들을 갈무리해서 설화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정 화소들의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특히 봉황 화소와 천등 화소

7) 제보자: 봉정사 주지 도륜 스님 / 조사일시: 2019년 06월 25일 13:00~13:30 / 조사장소: 봉정사 / 조사자: 필자

에 주목해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두 화소는 봉정사 창건 설화에서 핵 사건을 구성하는 주요요소이기 때문이다.

봉황 화소와 천등 화소를 중심으로 의미화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봉정사의 창건 설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이때 스토리텔링은 기존의 담화(discourse)를 통해 스토리(story)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담화를 형성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sup>8)</sup> 봉정사 창건 설화가 전승·변용되는 과정을 추적해봄으로써, 어떤 설화적 요소가 스토리텔링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방향성’이라는 용어로 포착해서 진행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 2. 봉정사 창건 설화의 존재 양상과 두 서사적 층위

봉정사의 창건과 관련된 설화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는 알 수 없다. 1972년 봉정사 극락전(極樂殿)을 해체수리 하던 당시 어간 종도리에서 발견된 <상량문(上樑文)>(1625)에서는 “지세(地勢)가 마치 봉황새가 멈추어 서 있는 것과 같으므로 봉정사라는 명칭으로 불렀다”<sup>9)</sup>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떠한 설화적 요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이전 시기에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이 남긴 『퇴계선생문집(退溪先生文集)』 4권 「시(詩)」편을 보면, 봉정사와 관련된 설화는

8) 신호림, 「스토리텔링의 관점에서 본 박동진본 <변강쇠가>」, 『동아시아고대학』 51, 동아시아고대학회, 2018 참고. 이런 스토리텔링에 대한 정의가 다소 느슨하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 강조하고자 싶은 부분은 스토리텔링의 시작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리고 그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창건 설화의 현대적 활용보다 창건 설화 그 자체를 주목해야 한다는 당위를 제시해보고자 스토리와 담화를 중심에 둔 스토리텔링에 대한 정의를 가져왔음을 미리 밝힌다.

9) 문화재청, 『봉정사 극락전 수리·실측 보고서』, 문화재청, 2003, 105쪽에 수록된 <상량문>을 재인용.

16세기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봉정사서루차운(鳳停寺西樓次韻)>의 일부분을 살펴보자.

梵宮西畔一樓橫	질 서쪽에 누각 하나가 비껴 있는데
創自新羅幾毀成	신라 때 창건되어 몇 번이나 다시 지어졌다네.
佛降天燈眞是幻	부처가 천등(天燈)을 내렸다는 것이 허황된 소리니
胎興王氣定非情	태(胎)가 왕기(王氣)를 일으켰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리. <sup>10)</sup>

위의 두 구는 화자(話者)가 봉정사를 바라보는 시선을 먼저 확인시켜주고, 뒤이어 신라 때 창건된 이후 중수(重修)가 여러 차례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다음 구에서 봉정사 창건 설화와 관련된 구절이 발견되는데, 지금까지 “佛降天燈眞是幻”은 “부처가 천등산에서 내려왔다는 게 허황된 소리니”로 번역되어 봉정사 설화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구절로 인식되었다.<sup>11)</sup> 일반적인 한시 해석에서는 “佛降天燈”을 “부처가 천등산에서 내려왔다”고 보는 것이 옳지만, 『퇴계선생문집』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봉정사서루차운> 후반부에 추가되어 있어서 해석의 방향을 달리해야 한다.

봉정사는 신라 때 처음 창건되었고, 능인대덕이 지었다. 능인이 산에 머무르고 있을 때, 천등(天燈)이 길게 앞에 드리워져서, 이로 인해 천등산이라고 칭했다. 또 산 앞에 태장(胎藏)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전해오기로는 어떤 시기의 어떤 왕의 태(胎)를 묻었다고 한다.<sup>12)</sup>

10) 원문은 한국고전종합 DB(<http://db.itkc.or.kr/>)에서 인용했다.

11) 1608년에 권기(權紀) 등이 편찬한 경상도 안동의 읍지 『영가지(永嘉誌)』 6권 『불우(佛宇)』편과 1899년에 전국읍지상송령에 의해 제작된 관찬(官撰) 읍지(邑誌)인 『안동부읍지(安東府邑誌)』의 『제영(題詠)』편에 퇴계 이황의 시를 수록하고 있는데, 각각 국역되어서 자료의 접근성이 높은 상태이다. 국역본은 안동군, 『(국역) 영가지』, 안동군, 1991와 안동문화원, 『(역주) 안동부읍지·예안군읍지』, 안동문화원, 2012를 참고했다.

『퇴계선생문집』에 관련 설화가 부기되어 있기 때문에 한시의 해석도 설화에 맞게 바로 잡아야 한다.<sup>13)</sup> 그렇다면 능인대사가 수련할 때 천등(天燈)이 내려왔다는 설화는 16세기 이전에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유학자인 퇴계 이황의 시선에서는 허황된 것으로 인식되었을지라도 기록으로 남길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퇴계 이황의 언급 이후에는 『영가지(永嘉誌)』 2권 「산천(山川)」편에서 천등굴을 소개하며 “능인(能仁)이 여기에 거(居)하면서 도를 닦았는데 천등(天燈)이 항상 여기에 달려 있었기에 이렇게 이름했다”<sup>14)</sup>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17세기까지의 봉정사에 대한 설화적 기억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며, 그 이후에는 모두 20세기 이후에 조사·채록된 자료에서 봉정사 창건과 관련된 설화를 발견할 수 있다. 20세기 이후 조사된 봉정사와 관련된 창건 설화의 현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20세기 이후 조사된 봉정사 관련 창건 설화의 현황

연번	설화 제목	출처
1	천등산의 천등굴(天燈窟)	류중선, 『영남의 전설』, 형설출판사, 1971, 229~231쪽.
2	봉서사(鳳棲寺)의 유래	임재해, 『한국구비문학대계』 7-9(경상북도 안동시·안동군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660~662쪽.

12) 寺始創於新羅, 大德能仁所創. 仁居此山, 天燈長垂於前, 因名曰天燈山. 又山前有地名胎藏, 相傳藏某時某王胎.

13) “胎興王氣定非情”도 마찬가지로이다. 지금까지 이 시구는 “왕기(王氣)가 여기서 태어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리”로 번역되었는데, 태장이라는 지명은 고려 공민왕 6년에 궁중에서 이곳에 태를 묻었다 하여 태무지로 불리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에 태장이라 개칭했다는 유래가 있다(문화재청(2003), 앞의 책, 98쪽). 태장의 지역유래 담과 퇴계 이황의 기록을 참고했을 때 “胎興王氣定非情”은 “태(胎)가 왕기(王氣)를 일으켰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리” 정도로 번역해야 할 것이다.

14) 안동군(1991), 앞의 책, 115쪽.

3	천등산(天燈山)과 의상도사	임재해, 『한국구비문학대계』 7-9(경상북도 안동시·안동군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662쪽.
4	개목사(開目寺)를 지은 의상조사와 맹사성	임재해, 『한국구비문학대계』 7-9(경상북도 안동시·안동군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714~715쪽.
5	봉정사	한국관광문화연구소, 『한국의 명산대찰』, 보림사, 1982, 382쪽.
6	봉정사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총서 16: 경북의 전통사찰Ⅲ』, 사찰문화연구원, 1992, 198쪽.
7	봉서사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총서 16: 경북의 전통사찰Ⅲ』, 사찰문화연구원, 1992, 195쪽.
8	개목사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총서 16: 경북의 전통사찰Ⅲ』, 사찰문화연구원, 1992, 178쪽.
9	天燈山에서 득도한 義湘祖師	경상북도 안동 교육청 편, 『안동의 설화』, 경상북도 안동 교육청, 1992, 46쪽.
10	鳳棲寺와 鳳停寺의 유래	경상북도 안동 교육청 편, 『안동의 설화』, 경상북도 안동 교육청, 1992, 123쪽.
11	천등산 천등굴	경상북도 안동 교육청 편, 『안동의 설화』, 경상북도 안동 교육청, 1992, 170~172쪽.
12	天燈山과 鳳停寺에 얽힌 전설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편, 『봉정사 극락전 수리공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2, 50쪽
13	봉서사(鳳棲寺)	안동민속박물관, 『안동의 사찰』, 안동민속박물관, 1999, 38쪽
14	영봉사(詠鳳寺)	안동민속박물관, 『안동의 사찰』, 안동민속박물관, 1999, 120쪽
15	봉정사(鳳停寺)	안동민속박물관, 『안동의 사찰』, 안동민속박물관, 1999, 43~45쪽
16	봉정사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지음, 『안동역사문화기행』, 푸른역사, 2002, 123쪽.
17	능인대사와 천등굴	안동문화원, 『안동의 설화』, 안동문화원 향토사연구소, 2008, 80~81쪽
18	천등산에서 득도한 의상조사	안동문화원, 『안동의 설화』, 안동문화원 향토사연구소, 2008, 89쪽
19	봉서사鳳棲寺와 봉정사鳳停寺의 유래	안동문화원, 『안동의 설화』, 안동문화원 향토사연구소, 2008, 96쪽
20	봉정사	신대현, 『우리 절을 찾아서』, 혜안, 2010, 353쪽.
21	능인대사와 천등굴	안동문화원, 『내 고장 편람: 서후편』, 안동문화원, 2013, 368~369쪽.

22	봉정사鳳停寺와 봉서사鳳棲寺의 유래	안동문화원, 『내 고장 편람: 서후면』, 안동문화원, 2013, 376쪽.
----	--------------------	---

[표 1]에서 제시한 설화 외에도 필자가 찾지 못한 자료집에 봉정사 창건과 관련된 다양한 설화 각편들이 수록되어 있을 것이다. [표 1]의 설화 자료 중에서도 직접 채록 조사를 했을지라도 전사(傳寫)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편집이 있는 경우도 있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다른 자료집의 설화를 전재(轉載)한 각편도 존재하기 때문에 온전한 자료만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비록 모두 온전하지는 않을지라도 22편의 각편을 통해서 봉정사의 창건을 둘러싼 설화적 기억들의 특징과 의미를 충분히 추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전반적으로 22편의 각편은 의상대사(또는 능인대사)가 수련을 하면서 천등을 얻어 득도했다는 천등산과 천등굴의 지명 유래담, 의상대사(또는 능인대사)가 종이로 봉황을 만들어 날리자 그 봉황이 자리를 잡아 봉정사를 짓게 되었다는 창건 설화, 두 이야기가 병렬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연결된 이야기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우선 각 설화 작품의 특징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봉정사 관련 창건 설화의 유형과 특징

유형	자료	내용의 특징
천등산과 천등굴의 지명 유래 유형(1)	3	• 천등굴에서 수련한 주체: 의상대사
	4	• 천등산에서 수련한 주체: 의상대사 • 이후 개목사의 창건으로 이어짐
	8	• 천등산에서 수련한 주체: 의상대사 • 이후 개목사의 창건으로 이어짐
	9	• 천등산에서 수련한 주체: 의상대사
	18	• 천등산에서 수련한 주체: 의상대사
	21	• 천등산에서 수련한 주체: 능인대사

봉황을 날려 봉정사를 창건한 유형(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황을 날린 주체: 의상대사</li> <li>• 봉황이 부석사에서 봉서사를 거쳐 봉정사까지 날아감</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황을 날린 주체: 의상대사</li> <li>• 봉황이 영봉사, 봉서사를 거쳐 봉정사까지 날아감</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황을 날린 주체: 의상대사</li> <li>• 봉서사를 거쳐 봉정사까지 날아감</li> </ul>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황을 날린 주체: 의상대사</li> <li>• 부석사에서 영봉사, 봉서사를 거쳐 봉정사까지 날아감</li> </ul>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황을 날린 주체: 의상대사</li> <li>• 부석사에서 봉정사, 봉서사, 영봉사, 명봉사까지 날아감</li> </ul>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황을 날린 주체: 의상대사</li> <li>• 부석사에서 봉서사를 거쳐 봉정사까지 날아감</li> </ul>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황을 날린 주체: 의상대사</li> <li>• 부석사에서 봉서사를 거쳐 봉정사까지 날아감</li> </ul>
(1)과 (2)가 병렬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유형(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황을 날린 주체: 의상대사</li> <li>• 천등굴에서 수련한 주체: 의상대사</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황을 날린 주체: 능인대사</li> <li>• 천등굴에서 수련한 주체: 능인대사</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황을 날린 주체: 능인대사</li> <li>• 천등굴에서 수련한 주체: 능인대사</li> </ul>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황을 날린 주체: 능인대사</li> <li>• 천등굴에서 수련한 주체: 능인대사</li> </ul>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황을 날린 주체: 의상대사</li> <li>• 천등굴에서 수련한 주체: 능인대사</li> </ul>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황을 날린 주체: 능인대사</li> <li>• 천등굴에서 수련한 주체: 능인대사</li> </ul>
(1)과 (2)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형(4)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등굴에서 수련한 주체: 능인대사(혹은 의상대사)</li> <li>• 능인대사가 수행을 마치고 봉황을 날려서 봉정사를 지음</li> </ul>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등굴에서 수련한 주체: 능인대사</li> <li>• 능인대사가 수행을 마치고 봉황을 날려서 봉정사를 지음</li> </ul>
기타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등산에서 수련한 주체: 의상대사</li> <li>• 선녀가 햇불을 밝히고 청마(靑馬)가 나타나 길을 인도하는데, 그 청마가 지금의 절터에 자리를 잡았다고 해서 봉정사라고 이름을 지음</li> </ul>

유형(1)은 천등산과 천등굴의 유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의상대사 또

는 능인대사가 수련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천등산(굴)에서의 수련 → 하늘의 시험(여인의 유혹) → 시련 극복(유혹을 물리침) → 깨달음(천등)’으로 이어지는 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늘에서 천등이 내려오고 이것이 곧 의상대사 또는 능인대사의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장면에 작품의 주제가 집약되어 있다.

유형(2)는 의상대사가 부석사(浮石寺)에서 종이학을 날리자 그 학이 봉황으로 변해서 현재의 봉정사 터로 날아와 머물렀기 때문에 그곳에 봉정사를 지었다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유형(2)에서는 능인대사가 서사적 주체로 등장하는 경우가 없는데, 유형(1)과 (2)가 결합하는 유형(3)과 (4)에서는 봉황을 날리는 주체가 능인대사로 그려지기도 한다.

봉정사 창건 설화에서 수련의 주체 또는 봉황을 날리는 주체가 한 인물로 통일되지 않고 의상대사와 능인대사가 혼용되어 전승되는 이유는 봉정사를 창건한 인물에 대한 논란이 역사적으로도 분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퇴계 이황의 시문에서도 보았듯이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에서도 봉정사를 창건한 주체는 능인대사였다. 또한 <상량문>을 보면 분명 봉정사는 능인대사에 의해 창건된 사찰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의상대사에 의한 창건이라는 기록도 다수 발견된다. <상량문>(1625), <천등산봉정사기(天燈山鳳停寺記)>(1728), <경상좌도안동서령천등산봉정사대장경루판부수급인출규모기(慶尙左道安東西峯天燈山鳳停寺大藏經鑲板部數及印出規模記)>(1769), <양법당중수기(兩法堂重修記)>(1809) 등의 자료를 통시적으로 살펴봤을 때, 17세기까지는 능인대사의 창건이라는 기록 전승이 이어지지만, 18세기에 이르러 의상대사와 능인대사의 창건으로 윤색되고, 19세기 이후에는 의상대사 창건으로 바뀌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사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능인대사보다는 널리 알려진 의상대사를 전면에 부각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다.<sup>15)</sup> 봉정사의 창건 주체에 대한 기록이 능

인대사에서 의상대사로 변모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설화 향유층은 창건 설화를 전승함에 있어서 그 서사적 주체를 의상대사와 능인대사로 혼용해서 이야기를 구연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유형(1)과 (2)의 서사 주체를 어느 한 명으로 특정 지을 수 있을까? 유형(2)처럼 봉황을 날리는 서사만 독립되어 구연될 경우, 봉황을 날리는 주체가 모두 의상대사로 나오며 그 장소도 부석사로 묘사되기 때문에 의상대사가 봉황을 날렸다고 보는 것에 대한 의심의 여지는 적다. 다만, 유형(1)과 유형(3), (4)에서 천등산(굴)에서 수련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한 번 따져봐야 한다.

의상대사는 이미 중국에서 화엄종의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천등산에서 수련을 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더욱이, 의상대사와 능인대사의 관계는 『삼국유사』 제4권 『의해(義解)』편 ‘의상전교(義湘傳敎)’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사제지간이다. 이미 의상은 부처님의 화신이라고 하며, 그의 십대 제자로서 오진(悟眞)·지통(智通)·표훈(表訓)·진정(眞定)·진장(眞藏)·도융(道融)·양원(良圓)·상원(相源)·능인(能仁)·의적(義寂)이 언급된다. 능인대사는 아홉 번째에 위치하고 있으며, 모두에게 전기(傳記)가 있다고는 하나, 오진과 지통, 표훈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덧붙여 있다.<sup>15)</sup>

이런 관계를 고려한다면, 천등산에서 수련한 주체는 능인대사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높다. 부석사에서 의상대사가 봉황을 날려 봉정사의 터

15) 이 과정에 대해서는 임남수, 「鳳停寺에 관한 諸問題」, 『미술사연구』 22, 미술사연구, 2008, 74~77쪽 참고.

16) 世傳, 湘乃金山寶蓋之幻有也. 徒弟 悟眞, 智通, 表訓, 眞定, 眞藏, 道融, 良圓, 相源, 能仁, 義寂等 十大德爲領首, 皆亞聖也. 各有傳. 眞嘗處下柯山鵬崑寺, 每夜伸臂, 點浮石室燈. 通著錐洞記, 蓋承親訓 故辭多詣妙. 訓曾住佛國寺, 常往來天宮. 밑줄은 필자.

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불도를 닦은 제자 능인대사가 의상대사의 뜻을 받들어 봉정사를 세웠다는 식의 구도를 마련해볼 수 있다. 봉정사 창건 설화는 두 명의 서사주체가 등장해서 봉황 화소와 천등 화소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야기가 개별적으로, 때로는 결합되어 전승되었다. 결합된 형태를 가질 경우, 짧은 이야기에 두 인물을 등장시키는 것에 부담을 가졌기 때문에<sup>17)</sup> 어느 한 명으로 통일시키는 전승축을 마련하면서 서사주체의 혼란이 일어난 것이다.

결국, 봉정사 창건 설화는 두 개의 서사적 층위를 가지고 있다. 화소로 보면 천등과 봉황 화소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천등이라는 빛은 화엄종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화엄종의 대표적인 경전인 『화엄경(華嚴經)』에서도 깨달음에 이르는 순간 활성화되는 본원적 정신 에너지를 ‘빛’으로 표현한다. 깨달음이 ‘빛(virocana)’의 이미지로 재현됨으로써 그 빛을 받는 모든 존재가 자신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공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sup>18)</sup> 하늘에서 내린 빛이 천등이라는 화소로 구체화되고 이것이 곧 능인대사의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화엄종의 이치를 따져 봤을 때 자연스러운 서사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봉황의 경우, 봉황을 날린 곳이 부석사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부석사는 의상대사가 선묘룡(善妙龍)의 도움을 받아 부석(浮石)으로 그 공간

17) 원칙적으로 작중인물이 둘 이상이 되는 순간, 사건들은 동시성을 띠게 되고 스토리-선(線) 역시 단선적이지 아니라 복선적이게 된다. 그럼에도 스토리-시간을 자연적 시간 순서로 인식시키게 하는 것은 보편화된 독자의 성향이고, 그런 면에서 그것은 중요한 문학적 ‘관습’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사의 길이가 짧을수록 작중인물을 둘 이상 배치하여 스토리-선을 복선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는 S. 리몬-캐넌, 최상규 역, 『소설의 시학』, 문학과지성사, 1985, 34~35쪽,

18) 이효걸, 『『화엄경』과 스토리텔링 - 『화엄경』 유통을 위한 몇 가지 제언』, 『한국불교학』 76, 한국불교학회, 2015, 316쪽.

을 점유하고 있던 삿된 무리들을 쫓아내고 세운 절이다. 화엄종찰로서의 위상을 가지는 부석사에서 ‘봉황’을 날리는 이유는 부석사가 바로 봉황산(鳳凰山)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sup>19)</sup> 낙산사(洛山寺)를 일으키고 공간을 이동해서 부석사에서 화엄종의 세력을 키운 의상대사는 그의 가르침을 사사한 제자들과 함께 화엄종을 전파하고 사찰을 확장해나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봉정사 창건 설화에서는 화엄종의 전파를 봉황의 비상(飛上)과 정착으로 그려낸 것이다.

이런 양상은 부석사에서 날린 봉황이 봉정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구체화된다. 부석사에서 출발한 봉황은 봉서사(鳳棲寺)를 거쳐 봉정사로 향하거나(설화 자료 2, 10, 19, 22), 봉서사에서 영봉사(詠鳳寺)를 거쳐 봉정사로 향한다(설화 자료 7, 13). 봉서사와 영봉사 모두 의상대사와 관련이 깊은 곳으로, 봉황 화소가 경북 일대에 사찰건립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봉사(詠鳳寺)>(설화 자료 14)에서는 봉황이 경상북도 예천군에 위치한 명봉사(鳴鳳寺)까지 거쳐 가는 것으로 서사가 확장되기도 한다. 봉황은 봉정사를 포함하여 봉서사와 영봉사 등의 사찰 건립으로 화엄종의 세력이 확장되는 양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문학적 산물인 셈이다.

이처럼 봉정사 창건 설화는 두 층위의 이야기가 혼종되어 지금까지 전승되었다. 천등과 봉황 화소를 활용함으로써 화엄종의 전파와 깨달음의 이치를 이야기 속에 녹여내어 봉정사 창건과 관련된 특정한 의미망을 형성했던 것이다. 여타 사찰연기설화 또는 창건 설화와 마찬가지로 짧은 서사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봉정사만의 기원과 특징을 구현해내고 있다.

19) 부석사의 누각에는 ‘봉황산부석사(鳳凰山浮石寺)’라고 표기되어 있기도 하다.

### 3. 봉정사 설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의 방향성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기 전까지 봉정사는 주로 영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1989)의 촬영지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2018년 세계유산 등재 이후 봉정사의 문화적 가치가 공인되고, 이제는 안동의 대표적인 문화 관광지로 자리 잡게 되었다. 봉정사가 위치한 안동 또한 하회마을(2010)이나 유교책판(2015)과 같은 세계유산도 보유하고 있어 한국 전통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다지고 있다.<sup>20)</sup> 안동시는 2019년 6월의 안동 테마 여행으로 ‘세계유산을 따라 설계해본 안동여행’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런데 하회마을이나 유교책판과 같은 세계유산에 비해 봉정사를 찾는 관광객들은 봉정사만의 정체성이나 의미를 온전하게 전달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그동안 연구사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봉정사 창건 설화에 주목한 이유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봉정사가 지니고 있는 역사성과 종교성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지만, 봉정사의 정체성이나 변별적 특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한다. 봉정사 창건 설화는 위트스틱 지식체계를 구축하면서 이야기의 형식으로 봉정사에 대한 특정한 이해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 창건 설화를 매개로 봉정사가 대중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스토리텔링의 방향성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봉정사 창건 설화의 담화에서 추출할 수 있는 스토리는 크게 두 층위로 분류할 수 있는바, 하나는 ‘봉황’을 중심으로 한

20) 권기백·김신애·권기대, 『한국전통문화도시의 정체성 및 지역브랜드자산 비교연구 - 안동, 공주, 전주를 중심으로-』, 『브랜드디자인학연구』 17-1,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2019. 2019년 7월에는 <한국의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도산서원(陶山書院)과 병산서원(屏山書院)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전통문화도시로서의 안동의 정체성은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화엄종의 전파이며, 다른 하나는 ‘천등’이라는 빛 또는 불을 중심으로 한 화엄종의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이 담화에서 찾아낸 스토리에서 새로운 담화를 창출하는 과정이라고 했을 때, 봉정사의 창건 설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의 방향성도 봉황과 천등을 중심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봉황의 경우, 봉정사에서 현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봉정사 영산암(靈山庵)과 지조암(知照庵)의 벽화에 그려진 봉황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림 1] 봉정사 영산암 나한전 우측 벽화<sup>21)</sup>



[그림 2] 봉정사 지조암 칠성전 우측 벽화<sup>22)</sup>

[그림 1]은 봉정사 영산암의 나한전(羅漢殿) 또는 응진전(應眞殿)에 들어가면 우측 벽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좌측에는 학(鶴) 두 마리가 그려져 있어, 학과 봉황은 짝을 이룬다. 마치 종이학이 봉황이 되어 봉정사 터에 자리 잡았다는 설화를 그림으로 옮겨놓은 듯하다. 그런데 [그림 2]에서

21) 사진 파일은 봉정사 주지 도륜 스님에게 제공받았다. 봉황 한 쌍이 자리 잡고 있고, 우측에 “鳳鳴朝陽”이라는 문구가 보인다. 영산암 나한전에 가면 실제로 이 벽화를 확인할 수 있다.

22) 이 사진 파일 또한 봉정사 주지 도륜 스님에게 제공받았다. 봉정사 지조암은 참선하는 스님들이 수행하는 도량으로 자리 잡았으며, 외부인의 출입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벽화 또한 2019년 7월 현재 칠성전이 보수공사 중이라 실제로 확인할 수 없다.

처럼 지조암의 칠성전(七星殿)에는 영산암의 나한전과는 달리 봉(鳳)의 그림만 그려져 있다. 현재 봉정사 주지로 있는 도륜 스님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전설과 관련해서는 영산암에 응진전이 있습니다. 나한전이라고 하는데, 그 나한전..에 전설이 있는 사진을 거기에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 어떤 사진이나 고 하면, 학 하고 이렇게 봉황 그림하고 벽화가 양측 벽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학이 두 마리가 있고 어... 그런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칠성전에는 봉황이 두 개가 그려져 있는 게 아니고 칠성전에는 봉황이 한 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할 때는 봉명조양(鳳鳴朝陽)이라고 해서 봉명조양이라고 하는 어... 글이 있죠 그리고 그 운... 운노라고 하는 작자가 이 그림을 그렸다 하는 그것이 이제 보이는데. 그... 여기에도 학이 두 마리 그려져 있고, 칠성전 그러니깐 지조암에는 또 하나가 더 하나가 있는데. 지조암의 칠성전에는 또 여기 벽화에 학이 두 마리가 있는데, 한쪽 벽에는 그죠? 그... 한쪽 벽에는 이와 같이 학(봉황을 잘못 말한 것: 필자)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죠? 학(봉황을 잘못 말한 것: 필자)이 한 마리가 있는데, 여기 인제 시가 있는데, 그... 이 시가. 또 의미심장한 게 왜 봉황이라는 게 봉새와 황새잖아요. 수컷 봉 새[鳳]에 암컷 황 새[凰]거든요. 쌍으로 가는데 여기에는 왜 하나가 있느냐 이거죠. 그죠? 여기는 이게 인자 학이고 전설인데 여기는 한 마리다. 여기에는 그... 이... 수컷이 한 마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요 내용이, 요 내용이 내 중에 한 번 해석을 한 번 해보시고, 해독을 해보시고 요 내용이 이... 깨달은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짝을 기다리고 있다. 즉, 말하자면은 이 봉황, 영산암에 지조암에 있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깨달은 자, 깨친 자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시를 적었어요. 근게 한 마리에다가 시를 적은 것은 여기에는 어... 수행하는 도량에서 능히 좀 깨친 자가 여기 와서 어... 머물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인제.<sup>23)</sup>

23) 제보자: 봉정사 주지 도륜 스님 / 조사일시: 2019년 06월 25일 13:00~13:30 / 조사장

[그림 2]의 봉(鳳) 한 마리의 형상은 곧 부재하고 있는 황(凰), 다시 말해 깨달은 자를 기다리고 있는 봉정사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화엄종의 전파를 의미하는 봉황 화소를 의도적으로 결핍되게 그림으로써 “영산암에 지조암에 있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깨달은 자, 깨친 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새로운 의미를 도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서인지 봉황의 이미지는 봉정사 템플스테이를 홍보하는 홈페이지 배너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3] 봉정사 홈페이지 템플스테이 배너 2번째와 3번째 사진

도륜 스님이 구연한 지조암 벽화와 관련된 설화는 “봉황이 머무른 자리: 템플스테이”라는 문구와 결합되면서 봉정사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황(凰)의 이미지를 부여하게 된다. 기존의 담화에서 구축된 봉황에 얽힌 스토리에서 새롭게 담화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은 스토리텔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다만, 지조암의 칠성전 벽화에서 봉(鳳)의 우측에 삽입된 한시(漢詩)를 살펴보면, 봉과 황의 관계를 너무 지나치게 해석한 것은 아닌가 싶다. 우선 시의 내용을 살펴보자.<sup>24)</sup>

소: 봉정사 / 조사자: 필자, 밑줄은 필자

24) 시의 해석은 고려대학교 정용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다. 이 자리를 빌려 정용건 선생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山是岐陽                    산은 기산(岐山)<sup>25)</sup>과 조양(朝陽)<sup>26)</sup>이요,  
 樹是桐篁                    나무는 오동과 대숲이로다.<sup>27)</sup>  
 此間彼何禽                이곳의 저 새는 어떠한 선조(仙鳥)이길래  
 時鳴老來雲棲耶        때때로 우짖으며 늘그막에 구름처럼 머무르는가.

시가 지시하고 있는 것은 황(凰)을 기다리고 있는 봉(鳳)의 형상이 아니다. 봉황과 관련된 기산(岐山)과 조양(朝陽) 그리고 오동나무와 대나무에 대한 내용이다. 언제 이 벽화가 그려졌는지는 모르지만, 문예적 기질이 뛰어난 누군가가 봉정사의 창건 설화에서 착안하여 봉황에 대한 그림과 전고(典故)를 활용한 시화(詩畫)를 벽에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지조암에 그려진 봉황에 대한 그림은 <봉명조양도(鳳鳴朝陽圖)>라는 이름으로 조선시대에는 궁중뿐 아니라<sup>28)</sup> 민간에서도 활발하게 그려졌던 것이다. 봉황의 상징적 이미지가 황제에서 제후(賢臣)로 변화된 봉황도(鳳凰圖)의 도상이 바로 <봉명조양도>인데,<sup>29)</sup> 《시경》 <권아

25) 기산(岐山): 《국어(國語)》 <주어(周語)>에, “주(周)나라가 세워질 때 기산(岐山)에서 봉황이 울었다.[周之興也 鶯鶯鳴於岐山]”라 하였다.

26) 조양(朝陽): 《시경》 <권아(卷阿)>에, “봉황이 우니, 저 높은 산에서 울도다. 오동이 자라니, 저 조양에서 자라는 도다.[鳳凰鳴矣 于彼高岡 梧桐生矣 于彼朝陽]”라 하였다. ‘조양(朝陽)’은 지명으로 볼 수도 있고, ‘산의 동쪽’, ‘해 뜨는 언덕’ 등으로 볼 수 있다.

27) 깃들인……대숲이로다: 《시경》 <대아(大雅) 권아(卷阿)>의 전(箋)에, “봉황은 오동나무가 아니면 깃들이지 않고,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 않는다.[鳳凰之性 非梧桐不棲 非竹實不食]”라 하였다.

28) 《시경》의 “鳳凰鳴矣 于彼高岡”라는 구절은 녹취재(祿取才)의 화제(畫題)로 순조 9년(1809), 헌종 4년(1838), 철종 1년(1850), 철종 4년(1853), 철종 5년(1854), 철종 12년(1861), 고종 10년(1873)에 걸쳐 총 7번이나 반복해서 출제되기도 했다. 강관식, 『奎章閣의 差備待令 畫員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1, 377~37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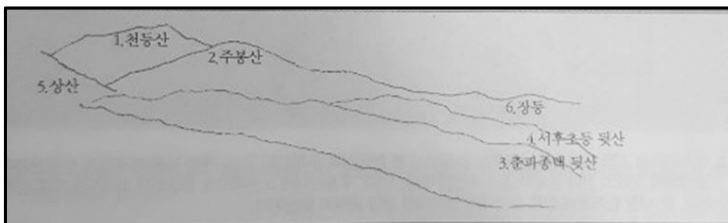
29) 김현자, 『한국과 중국 鳳凰圖의 도상과 상징 연구』, 『미술사연구』 26, 미술사연구회, 2012, 26쪽.

(卷阿)>에 근거하여 봉황의 우는 모습과 아침 해, 오동나무 등의 이미지가 <봉명조양도>에 견인되었다. 지조암의 벽화는 봉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지만, 그 전고를 살펴보면 봉황은 임금에게 간언(諫言)하는 현명한 문인들(賢臣 혹은 賢才)에 비유된다.

이렇게 봤을 때 ‘황(凰)을 기다리고 있는 봉(鳳)’이라는 새로운 담화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봉명조양도>와 봉정사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근거를 조금 더 찾아야 할 것이다. 근거가 확보되지 않는 한, 봉정사 창건 설화라는 스토리텔링의 원소스(one source)와는 거리가 있는, 그래서 봉정사의 본래적 의미를 상실한 담화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한계에 부딪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봉정사 창건 설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의 방향성은 천등이라는 빛의 이미지에서 모색하는 것이 더 설득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여인의 유혹으로 표상화 된 옥황상제의 시험도 통과한 능인대사의 수련 과정에서 천등이라는 화소는 깨달음의 빛을 보여준다. 화염종에서 깨달음의 이미지가 빛으로 표현되듯이, 천등은 화염종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

더욱이 천등굴과 천등산의 지명유래로 이어지는 천등은 풍수지리적으로 다시 봉황과 불의 이미지와 연결된다.



[그림 4] 천등산에서 검제마을로 이어지는 맥세<sup>30)</sup>

30)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지음(2000), 앞의 책, 29쪽 [그림 3]을 재인용.

[그림 4]는 천등산이 검제 마을로 이어지는 맥세를 간략하게 표시한 것이다. <봉정사>(설화 자료 5)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천등의 등(燈)은 햇불로도 표현되는데,<sup>31)</sup> 오행(五行)의 관점에서 봐도 천등산은 화기(火氣)를 지니고 있다.<sup>32)</sup> 그런데 봉이 머물렀다는 봉정사의 안산(案山)이 바로 천등산 정남(正南)에 위치한 주봉산(住鳳山)이므로 천등의 품안에 자리 잡은 봉(鳳)이 안산에 뛰어올라 그곳에 머무르는 형상이다. 그리고 주봉산은 발아래에 조화골[造火谷]을 만들고 검제마을 쪽으로는 장등(長燈)을 내린다.<sup>33)</sup> 퇴계 이황의 <봉정사서루차운>에서 천등(天燈)이 길게 앞에 드리워져서 있는 이미지[天燈長垂於前]를 떠올리게 한다. 봉정사의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봉(鳳)이 천등 품안에서 익힌 밝음의 화기는 주봉에 머물면서 장등을 통해 검제 마을 쪽으로 그 밝음의 기운을 뻗어내는 모습을 가진다.

빛이나 불로 인해 형성된 밝음의 기운은 봉정사와 같이 천등산에 위치한 개목사(開目寺) 설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2]의 유형(1)을 보면, 천등산과 천등굴의 유래담이 봉정사가 아니라 개목사의 창건과 연결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개목사(開目寺)를 지은 의상조사와 맹사성>(설화 자료 4)에서는 의상대사가 대망산에서 수련을 하던 도중 여인의 유혹을 물리치자 하늘에서 조명탄과 같은 천등이 환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산 이름을 천등산이라고 지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후에 맹사성(孟

31) “옛적 의상대사가 삼국통일을 기원하는 화엄기도를 드리기 위해 이 산에 오르니 ㅅ녀가 나타나 햇불을 밝히고 靑馬가 앞길을 인도하여 지금의 대웅전 자리에 앉았다. 그래서 山 이름을 天燈山으로, 절 이름은 靑馬가 앉았다 하여 鳳停寺라 했다고 한다.” 한국관광문화연구소, 『한국의 명산대찰』, 보림사, 1982, 382쪽, 밑줄은 필자.

32)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지음, 『안동 금계 마을 - 천년불패의 땅』, 예문서원, 2000, 30쪽.

33)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지음(2000), 위의 책, 30쪽.

思誠)이 안동부사로 부임했던 시절의 일화와 함께 안동 지역에 봉사가 많았는데 홍국사(興國寺)를 개목사로 고쳐 부르자 봉사가 덜 나왔다는 이야기와 병렬적으로 접합되어 있다. <개목사>(설화 자료 8)는 능인대사가 천등굴(天燈窟)에서 도를 닦던 중 천녀(天女)의 이적(異蹟)으로 도를 깨우치고 그곳에 홍국사(興國寺)를 세웠다는 내용이다. 이후 조선 초기에 안동 지방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 많았는데, 홍국사를 중창(重創)하자 안동에 눈병이 없어지므로 절 이름을 개목사로 바꿨다는 이야기로 이어진다.<sup>34)</sup>

개목사는 이름 그대로 봉사도 눈을 뜰 수 있는 종교적 힘을 함의하고 있다. 봉정사의 창건 설화가 개목사의 창건과 의미적으로 연속선상에 놓인다고 할 때 그 매개가 되는 것은 천등산 유래담에 등장하는 ‘빛’에 있다. 도륜 스님의 언급을 빌려오면, 눈을 뜨다는 것은 어둠에서 밝음으로 이르게 되는 것으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무명(無明)의 상태에서 벗어나 이 세상을 지혜의 눈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한다는 종교적 의미를 가진다.<sup>35)</sup> 깨달음의 빛은 천등산의 인문지리를 형성하고, 봉정사를 넘어 개목사의 창건 설화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봉정사를 둘러싼 콘텍스트적 맥락을 고려했을 때, 화엄종의 전파를 상징하는 ‘봉황’과 화엄종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천등’이라는 빛 또는 불 중에서 결국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결국 ‘천등’에 있다고 할 수 있

34) 개목사의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에는 다음과 같은 개목사의 유래가 소개되어 있다. “본래 홍국사(興國寺)로 신라 신문왕(神文王) 때 의상대사(義湘大師)의 제자인 능인스님이 절 뒤에 있는 천등굴에서 도를 닦던 중에 천녀(天女)의 도움으로 도를 깨쳤으며, 그런 연유로 여기에 큰절이 세웠다고 한다. 옛날 안동지방에 소경이 많았는데 여기에 절을 세운 뒤에는 눈병이 없어져 개목사라 이름을 바꾸었다고 전한다.” 현재 공식적으로 개목사의 창건 설화는 봉정사의 창건 설화와 같은 맥락 속에서 전승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5) 제보자: 봉정사 주지 도륜 스님 / 조사일시: 2019년 06월 25일 13:00~13:30 / 조사장소: 봉정사 / 조사자: 필자

다. 천등을 중심에 놓으면 빛이 품은 봉황의 이미지까지 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봉정사뿐만 아니라 봉정사를 둘러싸고 있는 천등산 영역권을 모두 포괄할 수 있다는 확장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

더욱이 천등굴이 있는 천등산은 봉정사에 있어서 ‘기원의 장소’로서 기능한다. 봉정사를 창건한 능인대사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천등’은 천등굴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고들리에(Maurice Godelier)의 말처럼 어떤 집단에서 나타나는 ‘신성성’은 언제나 그 ‘기원’에 바탕을 두고 있다.<sup>36)</sup> 깨달음의 기원에서부터 시작하여 봉정사까지 아우르는 신성한 공간을 천등을 매개로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능인대사가 수련을 했다는 천등굴에도 관심을 조금 더 기울여야 한다.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에 위치해있기도 하지만, 기원의 장소로서의 천등굴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5] 천등산 천등굴(2019년 07월 03일 촬영)

[그림 5]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천등굴에 대한 관리는 현재 잘 되고 있지 않다. 천등굴 안에는 호랑이를 타고 앉아있는 산신상(山神像)과 산삼(山蔘)을 들고 서있는 산신상이 놓여있다. 누가 가져다 놓은 것인지는 알 수

36) 모리스 고들리에, 오창현 옮김, 『증여의 수수께끼』, 문학동네, 2011 참고.

없지만, 이 굴은 현재 천등산을 오르는 등산객들 또는 인근 마을 주민들이 산제(山祭)를 지내는 공간으로 변질되어있다. 만약 “천등굴”이라는 굴 입구의 작은 입간판이 없었다면 이곳이 천등굴이라는 사실도 알 수 없을 것이다.

기원이 사라진 공간은 더 이상 봉정사의 신성성을 담보하지 못하게 되며, 천등의 의미도 퇴색하게 만들 것이다. 봉정사 창건 설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의 방향성을 천등에 두었을 때 천등산-천등굴-봉정사로 이어지는 빛의 공간과 이 깨달음의 빛이 품고 있는 봉황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봉정사뿐 아니라 천등굴까지 함께 아울러서 봉정사의 영역으로 인지하고, 함께 어울렸을 때 봉정사에 대한 새로운 담화가 창출될 수 있는 것이다.

#### 4. 나가며

이 글은 봉정사 창건 설화의 존재양상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봉정사 창건 설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봉정사 창건 설화를 검토한 결과 천등과 봉황 화소를 중심으로 구성된 두 층위의 이야기가 있음을 확인했다. 창건 설화를 활용하여 새로운 담화를 형성해내기 위해서는, ‘봉황’보다는 ‘천등’에 무게중심을 두었을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 천등은 봉정사를 창건한 능인대사의 깨달음을 의미하며, 그 깨달음을 얻은 공간인 천등굴은 봉정사의 기원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기원에 대한 기억은 봉정사의 신성성을 담보하며, 그곳에서 내려온 천등에 주목했을 때 그 빛을 품어주는 봉황의 이미지까지 포용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잊혀가고 있는 공간인 천등굴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천등산과 천등굴까지 봉정사의 영역으로 포섭해야 한다는 정도의 제안만 던져놓았다. 이를 기반으로 봉정사만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기획자의 몫으로 남겨놓는다. 연구자로서의 향후 과제는 창건 설화 외에 봉정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조사·수집·채록함으로써 또 다른 봉정사의 담화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자료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지면을 달리해서 다루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한국고전종합 DB(<http://db.itkc.or.kr/>)

- 강관식, 『奎章閣의 差備待令 畫員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1, 1~930쪽.
- 경상북도 안동 교육청 편, 『안동의 설화』, 경상북도 안동 교육청, 1992, 1~519쪽.
- 권기백·김신애·권기대, 『한국전통문화도시의 정체성 및 지역브랜드자산 비교연구 -안동, 공주, 전주를 중심으로-』, 『브랜드디자인학연구』 17-1,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2019, 5~22쪽.
- 김현지, 『한국과 중국 鳳凰圖의 도상과 상징 연구』, 『미술사연구』 26, 미술사연구회, 2012, 15~51쪽.
- 류증선, 『영남의 전설』, 형설출판사, 1971, 1~491쪽.
- 모리스 고들리에, 오창현 옮김, 『증여의 수수께끼』, 문학동네, 2011, 1~350쪽.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편, 『봉정사 극락전 수리공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2, 1~312쪽.
- 문화재청, 『봉정사 극락전 수리·실측 보고서』, 문화재청, 2003, 1~478쪽.
- 브루스 링컨 지음, 김운성·최화선·홍윤희 옮김, 『신화 이론화하기: 서사, 이데올로기, 학문』, 이학사, 2009, 1~567쪽.
-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총서 16: 경북의 전통사찰Ⅲ』, 사찰문화연구원, 1992, 1~504쪽.
- 송효섭, 『구조, 그 모자람과 넘침: 프로프와 레비스트로스 설화학의 대립적 관점』, 『기호학연구』 24, 한국기호학회, 2008, 67~90쪽.
- 신대현, 『우리 절을 찾아서』, 혜안, 2010, 1~411쪽.
- 신호림, 『스토리텔링의 관점에서 본 박동진본 <변강쇠가>』, 『동아시아고대학』 51, 동아시아고대학회, 2018, 95~124쪽.
- 안동군, 『(국역) 영가지』, 안동군, 1991, 1~491쪽.
-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지음, 『안동 금계 마을 - 천년불패의 땅』, 예문서원, 2000, 1~270쪽.
-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지음, 『안동역사문화기행』, 푸른역사, 2002, 1~199쪽.
- 안동문화원, 『안동의 설화』, 안동문화원 향토사연구소, 2008, 1~441쪽.

- 안동문화원, 『(역주) 안동부읍지·예안군읍지』, 안동문화원, 2012, 1~313쪽.
- 안동문화원, 『내 고장 편람: 서후면』, 안동문화원, 2013, 1~500쪽.
- 안동민속박물관, 『안동의 사찰』, 안동민속박물관, 1999, 1~327쪽.
- 이효걸, 『『화엄경』과 스토리텔링 - 『화엄경』 유통을 위한 몇 가지 제언』, 『한국불교학』 76, 한국불교학회, 2015, 311~340쪽.
- 임남수, 『鳳停寺에 관한 諸問題』, 『미술사연구』 22, 미술사연구, 2008, 73~92쪽.
- 임재해, 『한국구비문학대계』 7-9(경상북도 안동시·안동군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1~1273쪽.
- 최남선, 『六堂 崔南善全集』 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육당전집편찬위원회 편, 현암사, 1973, 1~759쪽.
- 한국관광문화연구소, 『한국의 명산대찰』, 보림사, 1982, 1~495쪽.
- S. 리몬-캐넌, 최상규 역, 『소설의 시학』, 문학과지성사, 1985, 1~228쪽.

ABSTRACT

A Study on the Two Narrative Layers of  
Bongjeong-sa Foundation Folktale and its Direction of Storytelling

Shin, Ho-rim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onsider the two layers of Bongjeong-sa foundation folktale and its direction of storytelling. Bongjeong-sa became the UNESCO world heritage in 2018 and it functions as the matter of expressing the locality of Andong as a traditional culture city. The reason we have to focus on Bongjeong-sa foundation folktale is that it shows the origin and identity of Bongjeong-sa.

Bongjeong-sa foundation folktale consists of two layers of stories. One is the narrative that Buddhist monk Ui Sang flies the phoenix to Bongjeong-sa, and the other is the narrative that Buddhist monk Neung In cultivates himself religiously in the cave and when he passes the test of heaven, fire lamp from heaven suddenly comes down. The phoenix is a symbol of the spread of Huayan school - Ui Sang is the progenitor of it. The fire lamp is the light which means the religious enlightenment of Huayan school. Bongjeong-sa foundation folktale contains the process of spread and enlightenment of Huayan school of Buddhism with these two layers of stories.

Storytelling means a dynamic process that extracting a story from a discourse, and making new discourse from that story. In this perspective, the possibility and direction of creating a new discourse of Bongjeong-sa should be started from the motif of phoenix and lamp of heaven. Especially, lamp motif is more significant because it makes the space of light related to Mt. Cheondeung(lamp), the cave of Cheondeung and Bongjeong-sa alive and also embraces a phoenix motif with the image that phoenix incubates the light of enlightenment. When we treat not only Bongjeong-sa but also the cave of Cheondeung as one religious territory, a

new discourse about Bongjeong-sa could be created.

**Key Words** Bongjeong-sa, foundation folktale, storytelling, phoenix, the lamp of heaven, Andong, Neung In, Ui Sang, world heritage

논문투고일 : 2019.07.16

심사완료일 : 2019.08.07

게재확정일 : 2019.08.16